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비교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강은정

1. 서론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에 대한 가치(James, 1892)로서 개인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아동청소년기에 형성된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성인기의 정서와 행동을 바람직하게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사회 부적응을 초래하기도 한다(이순희, 허만세, 2014). 또한 아동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이 시기의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변인이기도 하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청소년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사회부적응 등의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이순희, 허만세, 2014).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처한 다양한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변인이 된다(이은경, 박성연, 2011). 아동청소년의 경우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학업 수행과 함께 또래와 선생님과의 관계의 적응을 요구받는데, 이러한 요구들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강금주 외, 2012; 안수영, 이형실, 2009).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부모의 양육방식,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 외모, 건강상태, 학업성취도 등이 포함된다(손병덕, 허계형, 2016).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낮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아동보다 더 낮다. 부모의 양육방식에 있어서는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고 수용적이면서 적절한 지도를 경험하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대로 방임과 학대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갖게 한다.

종교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종교가 있는 청소년이 종교가 없는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백경임, 1997). 노경이(2009)는 종교가 삶의 의미, 목적, 신념과 같은 영성을 높임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인다고 하였다. 노경이(2009)는 또한 영성이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비율이 종교가 있는 집단에서 종교가 없는 집단에서보다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한 연구 더욱 드물다. 노경이(2009)는 30대에서 50대 사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기독교와 비기독교가 차이가 있는지, 둘째,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자아존중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기독교와 비기독교가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초1패널, 초4패널, 중1패널 각각의 6차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사용하였다. KCYPS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초1, 초4, 중1 패널들을 추적하는 자료이다. 초1, 초4, 중1 패널 모두를 분석에 포함함으로써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독교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변수

①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을 번역한 10개 문항을 사용하되, 긍정적인 6개문항을 역코딩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해석되도록 하였다.

② 기독교/비기독교: 기독교의 영향을 인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1차조사부터 5차조사까지 자료를 사용하여 변수를 정의하였다. 종교유무와 종류를 묻는 질문에 기독교라고 답한 경우(1)와 나머지 경우(0)를 구분하였다. 1차조사부터 5차조사까지 매년 기독교라고 답한 경우를 기독교로 분류하였다.

③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요인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지역, 가족구성, 가정형편을 포함하였다. 가족구성은 양친과 함께 거주할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정의하였다. 가정형편은 상, 중, 하로 조사되어 상을 기준으로 중, 하 집단을 비교하였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수면시간과 주관적 건강수준을 포함하였다. 수면시간은 주중 평균 수면시간을 조사된 취침 시간과 기상시간을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주관적 건강수준은 ‘매우 건강’, ‘건강한 편’을 건강(1)으로, ‘건강하지 못한 편’, ‘매우 건강하지 못함’을 불건강(0)으로 정의하였다.

아동청소년의 활동 영역 가운데 주중 평균 공부시간, 연평균 여행횟수, 연평균 문화참여횟수를 포함하였다. 공부시간은 학원/과외시간, 학교숙제시간, 학원/과외숙제시간, 기타 공부시간을 모두 합친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여행횟수와 문화참여횟수는 연도별로 변이가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1차조사부터 5차조사까지 자료의 평균으로 정의하였다.

학업 성취도는 전체 성적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는 편’을 만족(1)으로 ‘만족하지 않는 편’ 또는 ‘전혀 만족하지 않음’을 불만족(0)으로 정의하였다.

양육태도에는 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 등 총 6가지가 포함되었다. 각 항목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은 높은 점수가 긍정적 양육태도를 나타내도록 역코딩을 하였고,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은 높은 점수가 부정적 태도를 의미하도록 하였다. 또한 방임과 학대를 측정하는 문항 두 개도 포함하였다. 이들 역시 4점 척도이고 높은 점수가 높은 방임과 학대 문제를 의미하도록 하였다. 양육태도 항목들은 범주형에 속하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모두 연속변수로 취급하였다.

친구와의 관계에는 소통, 신뢰, 소외의 3항목이 포함되었는데 4점 척도로 정의되었다. 선생님과 관계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등의 4개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개수로 측정하였다(0-4).

(3) 분석

이변량 분석으로서 기독교인 여부와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특성들의 비교는 t-test, one-way anova, 혹은 카이제곱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자아존중감의 차이와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요인의 영향에 대한 비교는 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Stata/SE 12.1(StataCorp)를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1) 표본의 특성

표 1은 3개 패널의 제6차조사에 포함된 표본의 기본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초1패널에는 2,067명이 있었고 모두 6학년이었다. 초4패널에는 2,061명이 있었고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으며 중3이 99.8%였다. 중1패널에는 2,056명이 있었고 고3이 97.8%였다.

표 1. 초1, 초4, 중1 패널 제6차 조사의 표본 구성

단위: 빈도(%)

		초1패널		초4패널		중1패널	
전체		2,067(100.0)		2,061(100.0)		2,056(100.0)	
성별	남자	1,066(51.6)		1,091(52.9)		1,041(50.6)	
	여자	1,001(48.4)		970(47.1)		1,015(49.4)	
학년		6학년	2,067(100.0)	중3	2,057(99.8)	고3	2,010(97.8)
				중1	1(0.1)	고2	2(0.1)
				결측	3(0.2)	결측	44(2.1)

(2)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아동청소년의 특성 차이

표 2는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를 각 패널별로 기독교인 여부에 따라 보여준다. 먼저 초1패널(초 6학년)의 경우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에 비해 성적 만족도가 더 낮았고, 양친과 사는 비율이 더 낮았으며, 문화 참여횟수는 더 높았다. 또한 기독교인 아동에 있어서 과잉기대와 비일관성을 보이는 양육태도는 비기독교인 아동에 비해 더 낮고 학대 또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4패널(중3학년)의 경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세 가지 변수에서만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에 비해 문화참여횟수가 많았고, 과잉기대는 적고 합리적 설명을 하는 양육태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1패널(고3학년)의 경우 양친과 거주하는 비율에서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더 높았다.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보다 여행횟수가 더 많았고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더 많았으며, 선생님과 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초1패널, 초4패널, 중1패널 모두에서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2.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아동청소년의 특성

		초1패널 6차 조사		초4패널 6차 조사		중1패널 6차 조사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전체		344(16.6)	1,723(83.4)	308(14.9)	1,753(85.1)	294(14.6)	1,712(85.4)
성별							
남자		175(50.9)	891(51.7)	156(50.7)	935(53.3)	161(54.2)	854(48.5)
여자		169(49.1)	832(48.3)	152(49.3)	818(46.7)	136(45.8)	905(51.5)
지역							
서울특별시		41(11.9)	159(9.2)	*** 44(14.3)	195(11.1)	29(9.9)	163(9.5)
부산광역시		15(4.4)	109(6.3)	17(5.5)	107(6.1)	11(3.7)	108(6.3)
대구광역시		11(3.2)	100(5.8)	23(7.5)	101(5.8)	17(5.8)	122(7.1)
인천광역시		22(6.4)	91(5.3)	21(6.8)	72(4.1)	22(7.5)	109(6.3)
광주광역시		19(5.5)	81(4.7)	14(4.6)	94(5.4)	11(3.7)	66(3.8)
대전광역시		22(6.4)	95(5.5)	18(5.9)	90(5.1)	15(5.1)	77(4.5)
울산광역시		5(1.5)	86(5.0)	11(3.6)	76(4.3)	7(2.4)	93(5.4)
세종특별시		1(0.3)	7(0.4)	0(0.0)	2(0.1)	1(0.3)	2(0.1)
경기도		51(14.8)	267(15.5)	46(15.0)	274(15.7)	52(17.7)	241(14.0)
강원도		15(4.4)	65(3.8)	13(4.2)	83(4.7)	17(5.8)	77(4.5)
충청북도		19(5.5)	98(5.7)	20(6.5)	110(6.3)	16(5.4)	97(5.6)
충청남도		20(5.8)	81(4.7)	20(6.5)	100(5.7)	13(4.4)	71(4.1)
전라북도		36(10.5)	72(4.2)	20(6.5)	101(5.8)	20(6.8)	78(4.5)
전라남도		33(9.6)	83(4.8)	11(3.6)	64(3.7)	27(9.2)	62(3.6)
경상북도		13(3.8)	126(7.3)	12(3.9)	100(5.7)	20(6.8)	131(7.6)

경상남도	13(3.8)	118(6.9)		11(3.6)	119(6.8)		8(2.7)	120(7.0)	
제주특별자치도	8(2.3)	85(4.9)		6(2.0)	63(3.6)		8(2.7)	104(6.0)	
전체 성적 만족도									
만족	288(83.7)	1,520(88.2)	*	180(58.6)	997(56.9)		166(56.5)	920(53.6)	
불만족	56(16.3)	203(11.8)		127(41.4)	754(43.1)		128(43.5)	795(46.4)	
가족구성									
부모	309(86.6)	1,536(77.4)	***	257(78.8)	1,520(74.1)		241(79.0)	1,401(68.5)	***
기타	48(13.4)	449(22.6)		69(21.2)	532(25.9)		64(21.0)	645(31.5)	
수면시간(주중)									
평균(표준편차)	9.2(1.3)	9.3(1.2)		7.8(1.5)	7.7(1.4)		6.5(1.3)	6.5(1.5)	
공부시간(주중)									
평균(표준편차)	4.1(2.4)	4.2(2.2)		3.8(2.5)	3.8(2.5)		3.7(3.2)	3.4(3.1)	
연평균 여행횟수									
평균(표준편차)	3.5(2.4)	3.3(2.7)		2.8(2.2)	2.6(2.5)		1.9(1.4)	1.6(1.6)	*
연평균 문화참여횟수									
평균(표준편차)	4.5(3.0)	4.1(2.9)	*	4.6(3.2)	3.9(3.2)	***	4.4(3.5)	4.1(3.5)	
건강상태									
건강	336(97.7)	1,666(96.7)		291(94.5)	1,633(93.2)		275(92.6)	1,623(92.3)	
불건강	8(2.3)	57(3.3)		17(5.5)	120(6.1)		22(7.4)	136(7.7)	
가정형편									
상	162(47.1)	878(51.0)		86(27.9)	479(27.3)		50(16.8)	338(19.2)	
중	171(49.7)	797(46.3)		190(61.7)	1,106(63.1)		178(59.9)	1,115(63.4)	
하	11(3.2)	48(2.8)		32(10.4)	168(9.6)		69(23.2)	306(17.4)	
양육태도-감독									
평균(표준편차)	3.5(0.6)	3.5(0.6)		3.3(0.6)	3.3(0.6)		3.2(0.6)	3.1(0.6)	
양육태도-애정									
평균(표준편차)	3.5(0.6)	3.4(0.7)		3.3(0.6)	3.2(0.6)		3.2(0.6)	3.1(0.6)	**
양육태도-비일관성									
평균(표준편차)	2.3(0.8)	2.4(0.8)	*	2.3(0.7)	2.3(0.8)		2.1(0.7)	2.2(0.7)	
양육태도-과잉기대									
평균(표준편차)	2.7(0.7)	2.8(0.7)	*	2.6(0.7)	2.7(0.7)	*	2.5(0.6)	2.6(0.7)	
양육태도-과잉간섭									
평균(표준편차)	2.2(0.7)	2.3(0.8)		2.4(0.8)	2.4(0.7)		2.3(0.7)	2.3(0.7)	
양육태도-합리적 설명									
평균(표준편차)	3.2(0.7)	3.2(0.7)		3.1(0.6)	3.0(0.6)	*	2.8(0.6)	2.8(0.6)	
양육태도-방임									
평균(표준편차)	1.7(0.6)	1.7(0.6)		1.8(0.6)	1.8(0.6)		2.0(0.5)	2.0(0.6)	
양육태도-학대									
평균(표준편차)	1.7(0.7)	1.8(0.8)	*	1.8(0.7)	1.9(0.8)		1.7(0.7)	1.7(0.7)	
친구와의 소통									
평균(표준편차)	3.2(0.6)	3.2(0.6)		3.2(0.5)	3.2(0.5)		3.1(0.5)	3.1(0.5)	
친구와의 신뢰									
평균(표준편차)	3.2(0.6)	3.3(0.6)		3.2(0.6)	3.2(0.6)		3.2(0.6)	3.2(0.6)	
친구 소외									
평균(표준편차)	1.9(0.7)	1.9(0.8)		1.9(0.7)	1.9(0.7)		1.9(0.7)	2.0(0.7)	
선생님과의 관계									
평균(표준편차)	3.2(0.7)	3.3(0.6)		3.2(0.5)	3.1(0.6)		3.1(0.6)	3.0(0.6)	**
자아존중감									
평균(표준편차)	30.8(7.5)	28.1(11.8)	***	29.3(8.1)	26.1(11.6)	***	29.6(6.6)	25.6(11.1)	***

(3)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관련 요인의 비교

표 3은 회귀분석을 통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간의 자아존중감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간의 자아존중감 수준의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이는 표 2에서 나타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간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의 수준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표 3. 기독교인 여부가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초1패널 6차 조사		초4패널 6차 조사		중1패널 6차 조사	
표본수	2,025		1,954		1,946	
	Coeff.(SE)	P> t	Coeff.(SE)	P> t	Coeff.(SE)	P> t
기독교(비기독교)	-0.23(0.23)	0.323	0.34(0.23)	0.143	0.26(0.24)	0.268

주: 성별, 지역, 성적만족도, 가족구성, 가정형편, 수면시간, 공부시간, 여행횟수, 문화참여횟수, 건강상태, 양육태도,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를 통제하였음.

표 4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표본을 나누어서 각각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성별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초1패널에서 비슷하게 여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4패널에서는 비기독교인에서만 성별 차이가 나타났고, 중1패널에서는 기독교인에서 더욱 여자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차이는 세 개 패널 모두에서 비기독교인에서만 나타났고 기독교인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성적만족도는 모든 표본 집단에서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은 초1패널 비기독교인 집단에서만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공부시간은 중1패널 비기독교인 집단에서만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연간 여행횟수는 초1패널 기독교인에서만, 문화체험횟수는 중1패널 기독교인 및 비기독교인 집단에서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건강상태는 초1패널과 중1패널의 기독교인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었다. 가정형편은 초1패널에서는 자아존중감과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초4패널과 중1패널에서는 비기독교인 집단에서만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연결되었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인 것은 감독(초4패널 비기독교, 중1패널 기독교 및 비기독교), 애정(초1패널, 초4패널, 중1패널 비기독교), 비밀관성(중1패널 기독교), 과잉간섭(초1패널 기독교 및 비기독교), 합리적 설명(초1패널 비기독교), 학대(초1패널 비기독교)였다. 친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3가지 항목과 선생님과의 관계는 거의 모든 집단에서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관련 요인의 비교

Coeff.(SE)	초1패널 6차 조사		초4패널 6차 조사		중1패널 6차 조사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표본수	337	1,688	296	1,658	289	1,657
성별 (남자)						
여자	-0.95(0.46)*	-1.07(0.20)***	-0.40(0.46)	-0.76(0.19)***	-1.29(0.48)**	-0.66(0.20)**
지역(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0.35(1.25)	0.41(0.48)	-0.25(1.13)	0.16(0.47)	0.48(1.35)	0.25(0.47)
대구광역시	1.61(1.40)	1.72(0.49)***	0.03(0.95)	0.54(0.47)	0.38(1.22)	1.07(0.46)*
인천광역시	-0.24(1.06)	1.48(0.51)**	0.24(0.96)	1.22(0.56)*	-1.23(1.06)	0.50(0.48)
광주광역시	-1.90(1.17)	0.69(0.52)	0.70(1.10)	0.45(0.49)	0.89(1.36)	0.49(0.56)
대전광역시	0.99(1.06)	1.55(0.50)**	-0.61(1.02)	-0.34(0.48)	0.50(1.25)	0.36(0.53)
울산광역시	-3.27(1.85)	1.72(0.51)**	-1.10(1.27)	0.23(0.53)	-0.77(1.59)	0.81(0.49)
세종특별시	-2.53(3.94)	0.32(1.46)	-0.56(0.79)	1.37(2.65)	0.12(3.98)	2.70(2.59)
경기도	-1.44(0.85)	0.54(0.39)	-0.58(1.12)	0.21(0.37)	-0.30(0.92)	0.74(0.39)
강원도	-0.17(1.20)	0.14(0.56)	-0.54(0.98)	1.11(0.50)*	-0.46(1.20)	0.55(0.53)
충청북도	-0.61(1.11)	0.68(0.49)	-1.58(0.97)	0.44(0.45)	-1.01(1.21)	0.53(0.49)
충청남도	-1.51(1.09)	1.52(0.52)**	-0.28(0.98)	1.24(0.47)**	1.17(1.30)	0.86(0.54)
전라북도	-1.07(0.92)	0.90(0.56)	-0.26(1.21)	0.53(0.47)	-0.35(1.13)	1.34(0.52)*

전라남도	-0.32(0.97)	0.94(0.52)	0.81(1.16)	1.25(0.55)*	0.05(1.04)	0.56(0.57)
경상북도	-0.25(1.27)	0.83(0.46)	-0.91(1.22)	0.98(0.48)*	0.52(1.14)	1.20(0.46)**
경상남도	-0.35(1.27)	1.06(0.47)*	-0.91(1.22)	0.75(0.45)	0.96(1.52)	0.36(0.46)
제주특별자치도	1.67(1.52)	1.12(0.52)*	1.82(1.56)	1.24(0.56)*	-0.34(1.50)	1.13(0.48)*
전체 성적 만족도 (불만족)						
만족	2.02(0.63)**	1.79(0.29)***	1.47(0.45)**	1.25(0.19)***	1.43(0.48)**	0.73(0.13)***
가족구성(기타)						
부모	-1.19(0.71)	0.11(0.28)	-0.12(0.57)	0.43(0.28)	0.22(0.61)	0.12(0.24)
수면시간(주중)	0.01(0.17)	0.19(0.08)*	-0.01(0.15)	0.04(0.07)	0.14(0.18)	0.12(0.07)
공부시간(주중)	0.05(0.10)	-0.04(0.05)	-0.00(0.10)	0.01(0.04)	-0.08(0.08)	0.07(0.03)*
연간 여행횟수	0.23(0.10)*	-0.04(0.04)	0.03(0.10)	-0.03(0.04)	0.31(0.16)	0.09(0.06)
연간 문화참여횟수	0.05(0.08)	0.06(0.04)	0.03(0.07)	0.06(0.03)	0.14(0.07)*	0.06(0.03)*
건강상태(불건강)						
건강	2.48(1.47)	1.14(0.52)*	2.63(0.96)**	1.41(0.37)***	1.69(0.87)	1.41(0.35)***
가정형편(상)						
중	0.17(0.46)	-0.27(0.19)	-0.23(0.49)	-0.50(0.22)*	0.68(0.64)	-0.96(0.24)***
하	0.80(1.28)	-0.63(0.57)	-0.67(0.85)	-1.63(0.37)***	-0.15(0.80)	-1.46(0.32)***
양육태도-감독	-0.33(0.42)	0.07(0.17)	0.21(0.45)	0.48(0.17)**	0.92(0.46)*	0.35(0.16)*
양육태도-애정	-0.02(0.49)	0.54(0.20)**	0.31(0.51)	0.48(0.21)*	0.76(0.52)	0.46(0.20)*
양육태도-비일관성	0.01(0.32)	-0.07(0.14)	0.25(0.40)	-0.10(0.16)	-1.12(0.40)**	-0.14(0.16)
양육태도-과잉기대	0.30(0.38)	0.08(0.17)	0.42(0.41)	-0.05(0.17)	0.61(0.44)	-0.25(0.18)
양육태도-과잉간섭	-0.84(0.40)*	-0.37(0.16)*	-0.29(0.39)	-0.21(0.18)	0.47(0.49)	-0.03(0.18)
양육태도-합리적설명	0.18(0.40)	0.35(0.16)*	-0.06(0.41)	0.04(0.18)	0.09(0.44)	0.32(0.17)
양육태도-방임	-0.83(0.44)	-0.27(0.18)	0.08(0.46)	0.08(0.20)	0.13(0.48)	-0.18(0.20)
양육태도-학대	-0.27(0.36)	-0.45(0.14)**	-0.45(0.38)	-0.17(0.15)	-0.08(0.40)	-0.14(0.16)
친구와의 소통	1.63(0.51)**	1.16(0.21)***	0.73(0.52)	1.29(0.23)***	2.01(0.63)**	1.19(0.25)***
친구와의 신뢰	1.01(0.47)*	1.13(0.20)***	1.06(0.47)*	0.97(0.21)***	1.12(0.57)*	1.04(0.23)***
친구 소외	-0.87(0.31)**	-1.09(0.13)***	-1.28(0.33)***	-1.14(0.14)***	-0.89(0.38)*	-1.22(0.14)***
선생님과의 관계	0.73(0.35)*	1.06(0.16)***	1.17(0.43)**	1.26(0.16)***	0.87(0.41)*	0.84(0.16)***
상수	23.72(4.22)***	18.77(1.59)***	19.85(3.81)***	17.50(1.57)***	10.75(4.11)**	18.91(1.53)***
R-squared	0.4139	0.3674	0.3680	0.3533	0.4510	0.3187
Adj R-squared	0.3392	0.3528	0.2774	0.3381	0.3650	0.3024

5. 논의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있는지, 또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는 이러한 연구문제에 답을 주기에 적절한 자료로서 공개된 모든 자료인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차년도에 걸친 자료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종교의 종류나 종교 활동을 조사하는 국가 조사는 많지 않은데 이는 일정 부분 종교집단 간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의 제한 등의 이유로 종교는 의외로 사회과학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이고 이 점에서 KCYPS는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했을 때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초1패널(초6), 초4패널(중3), 중1패널(고3)의 모든 집단에서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에 비해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통제변수들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했을 때는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자아존중감 차이가 이들 통제변수들의 차이에 기인함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표 2에서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에 비해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문화체

험이나 교사와의 관계 등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관련성을 갖는 요인들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러한 긍정적 양육태도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기독교인의 아동청소년이 긍정적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들과 함께 생활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기독교인 아동청소년의 부모들도 기독교인일 가능성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고 향후 연구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기독교인을 지난 5년간 매년 자신이 기독교인으로 보고한 경우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기독교인을 비교적 좁게 정의한 것이다. 5년 미만 전, 예를 들어 6차 조사 1년 전에 기독교인이 되었을 경우는 본 연구에서는 비기독교인으로 분류가 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는 5년 이상의 비교적 장기간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진 아동청소년의 특성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자아존중감 관련 요인에서 눈에 띄는 차이는 기독교인에서는 지역간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가정형편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도 초4학년(중3)과 중1학년(고3)에서는 비기독교인에서만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자의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알려져 있으나 초4학년(중3)에서는 기독교인에서 이러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상태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도 초1학년(초6)과 중1학년(고3)에서는 비기독교인에게서만 발견되었다. 추후 다른 자료원과 기독교인에 대한 다른 정의를 사용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발견은 한국 기독교의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교회에서는 지역간 차이, 가정의 경제수준의 차이, 성의 차이, 건강상태의 차이 때문에 덜 차별받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을 더 보살피라는 가르침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새로운 가설을 만들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기독교인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상의 외적인 요인들보다는 양육태도, 또래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성적에 대한 만족도, 여행이나 문화체험 횟수의 증가와 같은 가족, 학교와의 관계적인 요인들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말해준다.

참고문헌

강금주, 윤숙영, 신현숙. 남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학업적 및 사회정서적 변인의 영향. 교육연구, 2012; 35: 1-24.

노경이. 영성과 자아존중감 및 종교 간의 관계 연구. 상담학연구, 2009; 10(4): 2591-2606.

백경임.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 청소년의 종교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동국대학교 경주대학 동국집론, 1997; 16(1)

안수영, 이형실. 남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09; 21(3): 163-176.

이순희, 허만세.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체계적 고찰. 학교사회복지, 2014; 27: 253-274.

이은경, 박성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2011; 18(4): 101-123.